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신계숙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강원도 정선으로 스무 번째 오토바이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천명을 저절로 알게 된다는 오십이 넘자 신체 적으로 여기저기 조금씩 처지는 데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이 그날이 그날인 채로 지내고 있었다. 씁쓸함이라는 나이에 혹 들어닥친 갱년기는 시도 때도 없이 몸 온도를 높였다.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나의 열증을 식혀 줄 수가 없었다. 걷거나 자전거라든가 타야 했다. 고심 끝에 작은 오토바이를 타기로 했다. 그러나 작은 오토바이는 강한 바람이 불면 휘청이는 등 불안한 면이 있어 좀 더 큰 오토바이에 도전하기로 했다.

첫 번째 관문은 2층 소형면허 취득이다. 8월의 띄약벌에서 열 시간 동안이나 가다 서는 연습을 반복했다. 일보일배하는 심정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면허증을 거머쥐었다. 세계 챔피언 벨트라도 탄 것처럼 스스로가 대견스러웠다. 그러나 바로 오토바이 대리점에 가서 내 몸무게보다 네 배나 더 나가는 큰 오토바이를 달릴 게 약해 버리고 말았다. 오토바이 대리점에서는 내가 오토바이를 사들인 최고령 여성 고객이었으므로 '조심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사는 방법

타세요!'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 오토바이를 2000km쯤 타고 나서야 간신히 혼자서 좌로 가고 우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럴 즈음 한 방송국으로부터 국내 여행과 음식을 주제로 하는 여행 프로그램에 출연해 줄 것을 제안해 왔다. 음식에 관한 프로그램이 워낙 많다 보니 타 방송국의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화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작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열 세 지역을 달려 보았다. 울릉에도 일곱 곳을 다녀왔다.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 아닌지 수도 없이 의심하였는데, 그 무모한 도전은 어느새 '무모한 자신감'을 키워 내고 있었다.

'부르릉' 하고 시동을 거는 순간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여행이나 탐험가가 뇌리를 스쳤다. 당나라 사람으로서 서역에 다녀와 대당서역기를 작성한 현장, 이탈리아 상인의 아들로 중국에 다녀와 동방견문록을 남긴 마르코폴로, 신라 시대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인도까지 여행하고 돌아온 혜초, 조선 시대 실학자로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청나라를 방문하여 그 모습을 고스란히 적어 낸 열화일기의 박지원, 27년간 아시아·유럽·아프리카 3대륙을 유람했던 이븐 바투타까지. 그들의 가슴도 나처럼 이렇게 두근거렸을까?

인생도 여행도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거라면 내 한번 다녀 보리라 마음먹고 시동을 걸었다. '부웅' 하는 시동 소리와 함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려 보았다. 오십

이라 안 될 줄 알았던 것들이 오십이어서 더 진하게 다가왔다.

제주 바다 저 아랫넷에서 왔을 붉은 오자마자 벚꽃을 피워 냈다. 봄이 왔다고 벚꽃이 그렇게 소식을 전해 오더니 금세 색이 짙어진 개나리와 진달래까지 나를 반긴다. 코끝에 진하게 머무는 향은 라일락이었다가 아카시아였다가 인동초로 넘어간다.

바다는 파도를 만들어 물으로 물으로 바다 향을 나르고 또 나른다. 종일 숨이 없다. 바닷물을 뚫고 올라오는 일출은 그 자체가 강한 에너지로 무엇이든 소망하면 다 이루어 줄 것만 같다. 일몰은 일몰대로 하루하루 열심히 산 사람들을 위로하는 듯하다.

나무는 한 그루였다가 두 그루였다가 작은 산을 만들더니 거대한 산맥을 만들어 돌고 도는 길을 또 만들어 낸다. 향아리 모양으로 둘러싸인 숲에서 하룻밤을 지내려니 동이 뜨기도 전에 시작된 새들의 노랫소리가 마치 교향악인 양 귀를 즐겁게 한다.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한나뭇잎은 빛을 받아 차라리 눈이 부시다. 계곡을 휘돌아 흐르는 물소리도 창공의 새소리와 더불어 들림노래를 하는 듯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내달리다 푸른 하늘이 보이면 내려서 하늘 한 번 보고, 또 정겨운 풍경이 보이면 잠시 쉬며 심호흡도 해 본다. 달리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내 안의 묵은 찌꺼기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순수했을까? 컴퓨터의 리셋(reset)을 누르면 화면이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나의 하루도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요즘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 정말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 같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쯤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칠어진 세태를 보면서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며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사람들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뒤탈 없이 빼앗아 오면 자기 것이 되는 줄 알고 있다. 끝내 꼬리가 잡히고 백일하에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만은 법망을 피해 완전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완전범죄란 것은 없다. 설사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완전무결한 범죄라 하더라도 하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

불교에서는 모든 행위는 '업(業)'이라는 운명의 종자가 되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몸과 마음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작용들이 반드시 씨가 되고 시절 인연을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보응이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을 통해 짓는 죄는 물론이지만 행위에 드러나지 않는 마음으로

인과(因果)의 두려움

짓는 죄, 표현되지 않는 죄까지도 반드시 면할 수 없는 불행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과의 이치를 안다면 남을 속이고 해치는 불의는 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에게 천만 가지 선행을 가르치는 것보다 인과의 진리를 믿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한 일이다"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관계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셨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존관계는 원인과 결과라는 연속된 작용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운회하는 동력이 된다. 끝없이 관계하는 가운데 관계의 내용을 만들어 가는 원인을 '업'이라 한다. '업'은 바로 인과응보의 중심이다. 나라는 주체가 모든 만남을 통해서 관계하는 내용이 '업'이 된다. 업은 바로 끝없는 인과관계의 내용을 만들어 간다. 현재 이렇게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과거적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한다. 과거의 만들어진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를 수용할 때 어떻게 수용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미래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볼 때 미래는 숙명이 아니라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관계는 맺어가는 내가 나에게 접하게 되는 상황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하는냐 하는 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볼 때 나는 나의 운명, 나의 행과 불행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관계의 연속이다. 현재는 과거에 기초되어 있고 현재는 또한 미래를 결정하는 원인이 된다. 현재는 미래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과거의 죄업으로부터 용서받는 일은 '참회(懺悔)'라 한다. 참회란 깊은 뉘우침이고, 반성이다. 참회는 과거에 대한 반성일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다짐이 된다. 참회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현재에 접하는 어려움을 원망하지 않는다. 모든 원인을 스스로에게 돌리고 지난날 알고도 행하고 모르고도 행했던 잘못들에 대하여 반성하며 진리의 정책으로 삼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이를 거울삼아 현재를 성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기쁨과 보람을 찾을 수 있지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 일 속에서도 불행을 만들게 된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은 과거의 운명에 매달리지 않는다. 현재를 바로 보고 현재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한다. 과거는 현재의 원인이 되고 있고, 현재는 또한 미래의 바탕이 된다고 할 때 이 인과의 진리는 매우 숙명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만 현재 나의 마음에 따라 참회와 성찰을 통해 과거를 극복할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보며 진리에 합당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인과는 바로 창조된 원리가 된다. 현재의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면 참회로 미래를 개척하고, 탐진치(貪瞋癡)의 마음을 극복하며,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삶, 창조적 삶을 살아야 하겠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막아야 한다

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세슘 137은 발암인자로서 영유아나 노약자·임산부가 먹었을 경우 식도암·혈액암·대장암·위암 등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한다.

물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일본 근해에만 영향을 끼친다면 굳이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니다. 하지만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는 7개월 후 제주도 근해, 18개월 후에는 동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심지어 원전 오염수가 한 달 만에 서해로 유입될 거라는 연구도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감시를 강화해 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삼중수소 분석 지점을 22개소에서 32개로 확대하고, 일본 해수 유입 주요 경로 6개 지점의 조사 주기를 연 1회에서 4회로 늘렸다. 연안과 항만 감시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항만 분석 지점 7개소를 추가, 조사 지점을 39개소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일본 정부가 굳이 자국민들의 반대 여론까지 무시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고자 한다면 달리 막을 방도는 없다. 일본 정부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퍼블릭 논평' 응답에서 약 70%의 국민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했다. UN의 특별보고관 5명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환경과 인권에 중대한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막무가내식으

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국민의 반대 여론에 힘을 실어 주면서 한편으로는 국제사회가 일치된 모습으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규탄하도록 앞장서야 한다. 특히 중국이나 필리핀 등 인근 주변국과도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등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하고, 국제 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지금보다 해양 조사 횟수를 늘리고 조사 지점도 확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원전 오염수가 유입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신들이 영구히 터진 삼야아 할 우리 바다를 우리 세대가 방사는 오염으로부터 지켜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손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선조들의 뜻을 기리지 못하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생물체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국민도 정부를 믿고 우리 정부의 조치와 대응에 한목소리로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은 우리의 바다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바다,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社說

정부,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 지원 늘려야

해양쓰레기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바다 면적이 넓은 전남 지역에서는 양식장 피해 등으로 어민들의 수입 감소는 물론 주민들의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전남의 청정 해역을 뒤덮고 있는 해양쓰레기는 유입처도 다양한 데다 갈수록 양도 늘어나면서 이미 자치단체의 처리 한계를 넘어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연간 8만4106톤으로 이 가운데 60%가 해상에서 발생하고 40%는 내륙에서 유입되고 있다. 그렇지만 양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전남은 연평균 발생량(2만6713톤)의 2%만 내륙에서 유입된다. 51%가 관내 해상에서 발생하고 47%가 중국 등지에서 흘러 들어오고 있다. 특히 울 들어 지난달까지 신안·해남·진도도 유입된 평생 이모자받은 8580톤에 달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급증하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전남도 등 자치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처리 비용과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전남의 자치단체들은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2015년 1만 5735톤에서 2018년 3만2618톤까지 늘렸지만 역부족이다. 해남에서는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 주범인 스티로폼 부표를 정 해역을 뒤덮고 있는 해양쓰레기는 유입처도 다양한 데다 갈수록 양도 늘어나면서 이미 자치단체의 처리 한계를 넘어하고 있다.

전남도가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 및 지원 비용 상황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남도는 하천이나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을 70%까지 늘리고 친환경부표 보급 사업 처리비 지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거와 처리 비용은 물론 인력 지원까지 총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내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야겠지만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영농철 맞은 농촌 인력난 해소 대책 없나

영농철을 맞았지만 심각한 일손 부족으로 농민들의 사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촌 인력의 주축이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코로나로 막히고 일터를 지키던 노인 인력마저 공공근로로 물리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일보 기자가 '1일 농부 체험'을 해 본 결과, 전남 농가들의 일손 부족 사태는 심각한 실정이었다. 한 농가에서는 고구마 손을 심기 위해 심지어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밭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53명 있었는데 내국인은 한 명도 없었다. 그나마 숙련된 내국인 고령 인력은 노동 강도가 달한 공공근로 현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농장주는 "인근에 직업소개소만도 대어섯 곳이 없지만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못 찾아 수소문 끝에 정말 힘들게 고용했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들이

지나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는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이다.

농촌 일손 부족 사태는 영농 차질은 물론 농가에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임금이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여성 8만 원, 남성 10만 원 수준이었던 전남 농촌 지역 하루 임금은 각각 13만 원, 15만 원으로 치솟았다. 고임금으로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아예 농사를 포기하거나, 비교적 인력이 적게 드는 작물로 전환하기도 한다.

전남도와 21개 시·군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물론 고질적 농촌 인력난에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까지 맞물린 탓에 해법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자치단체에서는 농가 인건비를 일일액 보조하거나 장기적으로 인력을 대체할 영농 기자재 보급 사업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야구에서 타격을 가리켜 흔히 '3할의 예슬'이라 한다. 열 번 휘둘러 세 번만 성공해도 찬사를 받기 때문이다. 사실 투수가 던진 공을 배트로 정확하게 맞출 수 비 수아홉 명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 메이저리그 마지막 4할 타자인 테드 윌리엄스도 이렇게 말했다. "타격은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 가장 어려운 기술이며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다."

타격의 기본은 '다운스윙'이다. 어깨 높이로 배트를 쥔 타자가 투수의 공을 최대한거리로 때려 내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스윙을 해야 한다. 그레야 투구 속도와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의 위쪽에 맞아 땅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배트가 지평과 같은 궤적을 그리는 '레벨스윙'을 가장 이상적인 스윙이라 한다. 공과 배트가 만나는 지점이 커져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스윙의 시작과 끝이 똑같은 높이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투수가 던진 공의 궤적 또한 지면과 수평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레벨스윙이란 이론상으

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선수들은 대부분 살뜰히 훈련한다.

최근에는 어퍼컷스윙을 통해 타구의 발사각도를 높이는 '플라이볼 혁명'(fly ball revolution) 바람이 불고 있다. 수비 시프트가 발전하면서 땅볼을 치면 아웃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고, 투심 패스트볼과 체인지업 등 아래로 떨어지는 변화구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어퍼컷스윙은 홈런이나 2루타 등 장타 가능성을 높여 준다.

KIA 타이거즈가 극심한 '홈런 가뭄'에 시달리다 26경기에서 팀 홈런은 딱 다섯 개. NC

다이나노스의 알테이가 혼자서 친 열한 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과거 공포의 '대포 군단'이었던 KIA에 장타는 사라지고 땅볼만 난무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플라이볼 혁명의 전도사인 LA 다저스의 저스틴 터너는 "땅볼을 때려서는 장타를 칠 수 없다. 장타를 원하면 일단 공을 띄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메이저리그의 전설 테드 윌리엄스도 이런 말을 남겼다. "타구를 세게 쳐서 공중에 띄우라. 거기에 돈(성공)이 있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띄워야 산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